

강진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 본격 출범

분야별 전문가 19명 위촉
전문 자문·현장목소리 전달
스마트 관광 정책 내놓아

강진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IT관광, 마케팅, 콘텐츠기획 분야 등 관광·유통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활용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은 물론, 4차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광통합플랫폼 운영, 빅데이터 활용 관광객 패턴분석·관광상품 개발, 랜선 마케팅 등 스마트 관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유통 분야에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 입점 지원, 쇼핑플랫폼 스토어



개설교육, 결제시스템 간소화 등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제안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공간적·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역으로 이를 기회로 탈바꿈할 해법은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이라며

"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빌려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드론을 활용한 첨단 미래농업 기

반 구축, SNS모바일 앱 개발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군민 소통 강화, 스마트 복지회관 구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진도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 직원의 제도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와 컨설팅 전문강사인 신승근 교수를 초청,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승근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 제도의 도입 의미 등을 설명했으며, 보배섬 진도군만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성패는 지자체의 지역주민과 공직자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이 진도군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담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6500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1억 원 지급

소농직불금 57억·면적직불금 34억 지급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완도군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에서는 올해 총 6,582개 농가에 9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4,721개 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 합에 단계별·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861개 농가에 34억 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6월

에는 대상자별로 등록증을 교부한 후 10월에 대량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익직불금이 가뭄,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 '매일시장 재개장 기념'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해남군은 해남매일시장 재개장을 기념해 12월 1~2일 이틀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당 30만원 한도이며,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은 농협 등 판매대행기관에서, 카드형은 앱 충전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 10% 할인판매액 중 남은 13억원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할인판매 기간 중이라도 배정된 판매액인 13억원이 소진될 시 할인행사는 바로 종료된다.
또한 10%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10% 할인판매만 실시하며 5% 할인판매는 하지 않는다. 10% 특별 할인판매 종료 이후 12월 5일부터는 5% 할인, 할인한도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면 12월 1~2일 특별할인기간 중 30만원을 10% 할인 구매하고, 12월 5일부터 50만원까지 5% 할인 구매 가능하다.
해남읍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해남매일시장은 2015년부터 약 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순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상가가 입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0% 할인구매 한 해남사랑상품권을 새롭게 단장한 해남 매일시장에서 사용함으로써 전통시장만의 매력과 특색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정남진 장흥-정북 중강진 남북교류 추진"...경문협과 업무협약



장흥군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사장 임종석)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위수미 장흥군민주평통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날 협약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과 제도적 협력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협력 및 북측과의 신뢰 있는 교류 장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석 이사장은 "지자체가 남북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장은 대상자별로 등록증을 교부한 후 10월에 대량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익직불금이 가뭄,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